

일주문



월정사 인도 성지순례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2012년 7월 7~17일 인도 톰비니, 부다가야 등 성지순례를 봉행한다. (033)333-4729



통도사 화염산림 대법회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12월 24일까지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화염산림법회를 봉행한다.



파라다다청소년연합, 청소년 특강
파라다다청소년연합회 회장 도후 스님은 12월 15, 16, 20, 22일 동국대 부속 고등학교에서 집단상담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02)2011-1916.



약천사 태평양전쟁 합동위령제 봉행
제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은 12월 8일 약천사 위령탑에서 제15회 태평양전쟁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22일, '불교평론' 송년의 밤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인은 12월 22일 불교평론 오후 6시 서울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올해의 논문상' 시상식 및 송년의밤을 개최한다.

최초 비구니 강사 · 존귀한 스승 묘엄 스님



선수행에 매진한다. 묘엄 스님은 평소 생전 누더기를 입어도 정신은 살아있던 봉암사 시절을 회고하며 가장 중담계 살던 때라고 하시며, 승단의 방일함을 경계했다. 봉암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당시 처음으로 식차마니계를 수지한 스님은 1950년 통도사 자운 스님에게 사미니율의와 비구니계본, 범광경 등을 배운다. 스님은 출가 후 7년 간 해방과 전쟁의 시대 격동기에서 윤희암, 해인사 국일암, 동래 금화사,

월내 묘관음사, 창원 성주사 등지에서 수선 안거했다. 이후 스님은 비구니 강원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성철 스님의 소개로 동학사 운허 스님을 찾아가 비구니로선 처음으로 경전 공부를 시작했다. 1956년 동학사에서 사교과를 수료하고 경봉 스님으로부터 전강(傳講)을 받았다. 이후 범어사, 동학사, 봉선사, 부산 금수암, 진주 도솔암 등지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며 운허 스님 문하에서 공부하던 스님은 1957년에는 통도사에서 운허 스님으로부터 (화엄경 심지품)을 마저 배우고 지관 스님(가산불교문화원 원장),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 인환 스님(불교학술원 원장) 등 스님들과 함께 전강을 받았다. 당시에는 비구니는 가르치지도 않았던 시절이었다. 비구니 강원도 없어 비구니 강사의 존재 자체가 한국불교계의 큰 변화였다. 1959년 한국 최초의 비구니 전문강원인 동학사에서 최초의 비구니 강사로서 학인들을 가르친 묘엄 스님은 이후 1966년 청도 운문사에서 처음으로 비구니 강원을 개설하고 강주를 역임한다. 1961년 2월 통도사에서 처음으로 비구니에게 구족계를 주는 법석이 열려 자운 스님을 계사로 처음으로 비구니계를 수지하게 된다. 이후 스님은 마산대 불교학과를 수료하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2학년에 편입하여 3년 과정을 마쳤다. 1971년 수원 봉암사에 정착한 스님은 봉암사에서 선원을 개설할 요량으로 선방을 지어 4년간 정진에 힘쓴다. 스님 아래 운집하는 남자들이 많아지며 스님은 가르침을 위해 1974년 강원을 설립해 강주에 취임한다. 봉암사 강원 개원 이후 40년간 학장을 맡으며 현재까지 39회 800여 졸업생을 배출한 스님은 강원 교가를 직접 작사하는 애정을 보였으며 팔십 노구에도 화엄경 강의와 윤희암강의를 맡는 숭선수법을 보였다. 1992년 5월에는 도서관 '소요삼장' 개관식과 아울러 일연, 성학, 혜정, 대우, 일운 스님 등에게 전강식을 거행해 운허 스님의 강맥을 잇게 하였으며, 교단 내에서 교학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재 일연 스님을 비롯한 9명의 전강제자가 배출돼 강단에서 많은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 스님은 1981년 자운 스님으로부터 전계를 받아 비구니 율맥을 이어서 비구니구족계 수계산림 교수사, 갈마아사리를 역임, 조계종 계단위원으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계속해왔다. 스님은 1999년 세계 최초의 비구니 율원인 금강율원을 개원했는데 현재까지 대우, 적연 스님 등 7명의 전계제자와 4명의 율사들이 배출돼 계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스님은 2007년 독일 함부르크대학에서 개최한 '승가의 여성불자 역할' 국제회의에 참석하여서서 <한국 봉암사 비구니율원의 구조와 교육과정> 논문 발표를 통해 한국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공헌했다. 2007년 10월에는 종정 법전 스님으로부터 종단 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스님 최고 지위인 명사법계를 품서 받았으며 2009년 조계종 계단위원 회로부터 비구니 전계화상으로 위촉됐다.

스님은 결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명성 스님 조사 (요약)



평생 수하던 가사자락에 향기만 남기고 홀연히 세연(世緣)을 거두어 제행무상(諸行無常)을 보이신 제주당 묘엄 명사 스님! 스님께서는 80여 년을 사바에 머무시면서 비구니 수행과 교육에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통도사 보타암과 진주 도솔암에서 운허 스님께 경학을 배우던 도반스님,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과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항상 부드러운 유머와 자애로움으로 주위를 편안케 해주셨던 스님은 노모를 봉양함에도 효성이 지극하였습니다. 어묵(語默)과 동정(動靜)이 항상 바다였던 스님을 그리워하는 눈물은 나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雲去雲來天本靜이요 花開花落樹常閑이라 구름이 떠나지만 하늘은 본래 고요하고, 꽃이 피었다 지지만 나무는 항상 한가하다는 말이 있듯이 스님은 결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묘엄 스님! 오늘 모인 저 많은 사부대중의 흐느낌을 저버리지 마시고 속히 사바에 돌아오시어 재재처처에서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스님의 향훈 잊지 않겠습니다”

조계종 원로 비구니 제주당 묘엄 명사 영결식... 3000대중 운집 엄수

한국 비구니계의 큰 어른 조계종 원로 제주당 묘엄 스님의 영결식이 12월 6일 봉암사 우화궁 앞에서 봉행됐다. 묘엄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은 30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해 장엄했다. 특히 이날 영결식은 전국 비구니회장(禪)이었지만 종정 법전이 범어를 내리는 등 중단장에 준하는 의식이 봉행됐다.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진제 스님, 전계대 화상 고산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등 조계종 원로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등이 참석해 묘엄 스님의 뜻을 기렸다. 또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운문사승가대학장 명성 스님, 청암사승가대학장 지형 스님 등 비구니 원로들을 비롯해 1000여 비구니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 주요영 국회의원,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등이 영결식을 찾았다.

영결식은 삼귀의와 조계종 어장 동주 스님의 영결법요, 문도대표와 전계, 전강제자의 헌다 헌향, 화상 신흠사 주지 성일 스님의 행장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의원 진제 스님 대독을 통해 “세상에 생명의 거둬함을 피하고 무너지고 소멸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며 “주인공(主人翁)으로 사중득활(死中得活)의 소식을 일기 일경(一機一境)으로 한번 나누시라”고 전했다.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은 “60여 성상의 원력은 출가자의 모범이었다. 평생 교육도량을 일군 이곳에 속관사바하셔서 광도중생하시기를 바란다”고 추모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오늘날 우리 종문의 수많은 비구니를 길러낸 이 시대의 대에도 고타미”라며 “그 원력 여의지 않았으니 다시 오시는 날 대웅전 앞 향나무는 스님의 향훈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추도했다. 이어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수원 용주사 주지



묘엄 스님 운구 행렬에 3000여 대중이 만장을 들고 항상 바다였던 스님의 뜻을 기렸다.

정호 스님 등의 조사가 이어졌다. 이종 묘엄 스님의 도반으로 함께 비구니계를 이끌었던 운문사승가대학장 명성 스님(전 전국비구니회장)은 각별한 심경을 밝혀 대중의 눈시울을 자아냈다. 스님은 “통도사 보타암과 진주 도솔암에서 운허 스님께 경학을 배우던 도반스님, 함께 동고동락했던 과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속히 사바에 돌아와 재재처처(在在處處)에서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자”고 말했다. 영결식 후 묘엄 스님의 범구는 경내 연화대로 이운돼 다비됐다. 출재가를 떠난 수많은 대중들

은 만장을 들고 '나무아미타불'을 연호하며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한편 묘엄명사의 49재는 12월 8일 초재를 시작으로, 15·22·29일, 1월 5·12·19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봉암사에서 봉행된다. 스님은 후학을 위해 “마음공부는 상대적인 부처님을 뵈고 절대적인 나 자신을 찾는 것으로 자기를 단속해 인연의 사표가 되고 생사에 자재해 중생을 제도하라”고 임종계를 남겼으며 스님의 사리는 전통에 따라 별도로 수습하지 않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曹溪宗 元老比丘尼 世主堂 妙嚴明師 全國比丘尼會葬 奉行에 대한 感謝의 人事

曹溪宗 元老比丘尼 世主堂 妙嚴明師께서 지난 12월 2日 法臘67年, 歲壽80壽로 涅槃에 드셨습니다. 이에 12月 6日 永訣·茶毘式을 奉寧寺에서 全國比丘尼會葬으로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遠近을 不問하고 直接 찾아와 주신 宗團의 元老大德 스님과 諸方의 스님, 그리고 四部大衆께 感謝의 人事를 올립니다. 宜當 一一이 찾아뵈고 人事 올림이 道理인줄 아오나 于先 紙面으로 人事 올림을 惠諒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門徒와 同門 그리고, 奉寧寺 大衆은 後學養成과 韓國佛敎 中興을 위해 獻身하신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修行과 布敎에 더욱 精進 하겠습니다.

世主堂 妙嚴明師 追慕齋 案内

Table with 2 columns: Date and Time. Rows include 1st, 2nd, 3rd, 4th, 5th, 6th, 7th days of the memorial service.

● 問議 및 連絡處 : 031)256-4127(奉寧寺)

※49재는 설 명절 교통 관제로 5재(1월 5일)에 봉행합니다.



佛紀 2555(2011)년 12月 日

大韓佛敎曹溪宗 元老比丘尼 世主堂 妙嚴明師 門徒·奉寧寺 禪友會·奉寧寺 大衆 合掌